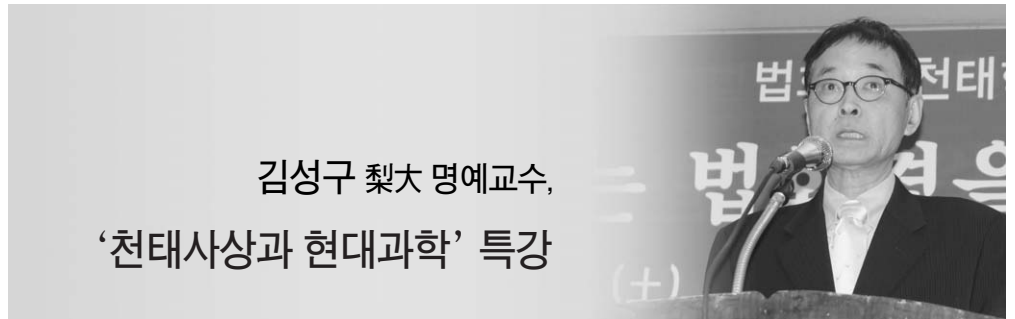


# ‘보이는 것 모두 헛 것’ 과학적 이해 필요



김성구 梨大 명예교수, '천태사상과 현대과학' 특강

“불교는 과학과 같음을 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종교다” 인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종교가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과학적 실재를 통해 불교교리를 설명한 특강이 있어 눈길을 끈다. 1월 19일 동국대에 열린 법화학전태학연구회 학술 발표회에서 김성구 명예교수(이하 여대)는 ‘천태사상과 현대과학’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교수는 천태의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뜻의 ‘이 마음이 곧 공이며 가미며 중이다’(此心 即空 即假 即中)라는 말과 신경과학과 물리학을 연계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대물리학이 불교의 유식이나 천태의 원융삼제(圓融三諦)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 유사함의 예로 불확정성 원리를 들어 공을 설명했다. 불확정성 원리란 입자의 위치와 속도는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은 없음도 아니고 허무도 아닌데 ‘없음’이라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양자역학에서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인식한 순간 ‘없음에서 벗

## 불교, 과학과 같음 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종교 공한 이치를 알면 괴로움을 여의게 돼...

어나려는 작용’이 생긴다.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란 있을 수 없고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진공에서는 입자 생성과 소멸이 끊이지 일어난다. 원융삼제는 공·가·중이 각각 공가중을 포함해 서로 원융한다는 천태사상이다. 원융삼제에서 보면 만물은 전부 삼제원융의 이치를 구족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법이 모두 종가입중관, 중공출가관, 중도관, 일심삼관의 삼제원융 진리라고 말한다. 김 교수는 실제에 관한 천태적 명제는 보통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 헛것이라는 공제(空)에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물질은 실제로 보고 마음과 정신활동을 두뇌의 산물이라 보는 신경과학은 가제(假)에 머물러 있다고 정리했다. 신경과학적 실재가 완전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종가입공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람이 괴로운 것은 ‘나’(我)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 집착을 놓으면 사람은 한없이 자유롭게 된다”는 김 교수는 “공한 이치를 알면 괴로움을 여의게 된다. 불교교리의 과학적 이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한 사물의 이치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화학전태학연구회는 2003년 이영자 명예교수(동국대)를 주축으로 시작된 법화학립이 모태다. 이 교수의 제자인 지창규 교수(동국대)에 의해 2007년 법학학립연구소로 확대·개편되면서 올해 출범했다. 지 교수는 “법화와 천태를 주제로 1년 4차례 학술연찬회를 열겠다. 곧 정식학회로 출범시킬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조동섭 기자

**Tip** 신경과학계에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명 : 가상세계로 대변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직접적인 관찰과 실험을 대신한다. 가상의 자연계에 디지털 생명체를 만들어 둘 수도 있다. 이런 인공생명체는 기존의 생명현상을 구현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사후세계 : 사후에 의식체가 존재하느냐는 종교의 주된 관심사다. 컴퓨터 상에 생명체로 존재하는 인공생명은 물질로 된 몸이 흩어져도 의식은 다른 방식으로 남아 사후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불교의 무아설과 흡사하다.)

▲자아 : 신경과학에서 자아는 신경과 신경의 연결인 시냅스의 구조와 기능으로 설명된다. 즉 심리상대는 두뇌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때문에 신경과학자들이나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기계도 사람처럼

# ‘노는 입에 염불하라’ 나옹 왕사 가르침 계승해야

## 보광 스님, 나옹의 정토사상 정리한 논문 발표

생활수행이 불교 수행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요즘, 고려 말 왕사였던 나옹 스님이 ‘노는 입에 염불하라’며 생활염불, 노동염불을 강조했음을 밝힌 논문이 발표됐다. 그동안 나옹 스님 행적과 사상을 논하면서 정토사상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경우는 있었지만 정토사상만을 정리한 논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1월 25일,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영덕군이 대각사상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나옹왕사 학술세미나’에서 보광 스님(대각사상연구원장)은 ‘나옹 왕사의 정토사상이 한국불교 신앙에 미친 영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광 스님은 “나옹 왕사의 수행과 교화 중 정토사상은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칭명염불, 관념염불과 염불선 등 여러 정토수행법을 이 두로 소개해 대중교화에 앞장선 공은 지대하다”고 평가했다.

나옹 스님의 <서왕가> 등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 보광 스님은 <서왕가>를 ①인간의 무상함, ②출가구도의 길, ③치열한 수행생활, ④염불수행 권유, ⑤유심정토를 설명, ⑥인과응보를 논함, ⑦마음의 도리와 무량함 설명, ⑧극락세계의 수승함 등으로 나눴다. “<서왕가>는 염불하지 않는 중생들을 경책하면서 염불하여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 정토 포교를 위한 노래”라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한국불교 의례에서 지공, 나옹,

무학 삼화상이 빠지지 않고 모셔졌을 예를 든 보광 스님은 “단순히 삼화상의 신통과 가피를 기원해 증명법사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삼화상의 가르침이 현재에도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도 현재 이진예불마다 행해지는 행선축원은 나옹스님의 발원문이다. 한편 이날 학술발표회에는 지관 스님(총무원장)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황인규 교수(동국대), 신규탁 교수(연세대), 이재수 박사(동국대) 전 자불전연구소 등이 나옹 스님의 행적과 사상을 조명했다. 조동섭 기자

# 일본으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 얼마나?

## 조계종 총무원, <해외유출불교문화재> 일본편과 <성보> 9호 출간

문화재는 민족문화의 바로미터다. 역사를 보증하고 민족정서의 토대가 된다. 하지만 임진왜란·일제 시대 등 갖은 외침과 혼란 속에 상당수의 우리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됐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다. 문화재청에서도 7만5천여 점에 이른다고 추정할 뿐이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이 해외유출불교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결과를 책으로 출간했다. 2007년 12월 출간된 <해외유출 불교문화재> 일본편에 따르면 일본소재 해외유출 불교문화재는 총 1584건, 1만477점에 이른다. 지역적으로는 박물관과 사찰이 많은 긴

키지역(교토·나라·오사카)이 580건/1천278점으로 가장 많다. 도요가 있는 간토지역은 516건/8천680점, 큐슈지역은 253건/253점이 유출돼 있다. 유형별로는 조각이 420건/446점, 서지·전적이 405건/8천957점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조사실무자인 이분희 행정관(총무원 문화부)가 <성보> 9호에 기고한 ‘해외유출 불교문화재 현황과 환수방안’을 통해 학술적인 고민과 대안제시로 이어졌다. 이 행정관은 북관대첩비 반환, 오대산 사고 <조선왕조실록> 반환 등 여러 사례를 제시하면서 기증과 구입, 반환요구 등 전략적 대

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은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당장 회수할 수 없더라도 단절된 우리 문화의 맥을 잇기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해외유출 불교 문화재 조사가 선결과제를 강조했다. 총무원은 <해외유출불교문화재>를 도난문화재 관련 기관에 배포해 문화재환수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일본 외 지역 유출 문화재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 향후 환권의 책자로 묶어 펴낼 예정이다.



위원회(위원장 수경)가 1회 발간하는 책이다. 2007년 12월 발간된 9호에는 김성도 박사(문화재청)의 ‘미타사 금보암 관음전 조사후기’, 김익주 소장(경남문화재보존연구소)의 ‘원주 상원사 중수비보존처리’, 정광용 교수(한국전통문화학교)의 ‘플라스틱 블라스팅을 이용한 갑사 법종의 보존’ 등 불교 문화재를 주제로 한 5종의 논문이 수록됐다. 조동섭 기자

**우리 학회는** (4)보조사상연구원 www.bojosasang.net

### 보조사상 선양 위해 준비된 법석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희)은 1987년 2월 설립됐다. 당시 송광사에서 회광승관 스님, 현호 스님, 법정 스님과故 이종익 교수(동국대), 심재물 교수(서울대), 김지연 교수(강원대) 등 당대의 선지식과 불교학자들이 뜻을 모았다. 초대 원장을 지낸 법정 스님(김삼사 회주)이 <보조사상> 1집 간행사에서 밝히듯이 “오늘날 보조사상이 편협한 종교계의 울타리를 넘어 인류정신 문화의 보편사상으로 국내외에 널리 그리고 깊게 수용되고 있음”을 화두로 삼고 학술활동에 매진한다.

2004년부터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는 법산스님(동국대)이 보조사상연구원의 주요사업은 크게 정기학술세미나와 월례발표회로 나뉜다. 정기학술세미나가 국내외의 전문가를 초빙해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면, 월례발표회는 신진학자 발굴과 주제별 심화토론에 중점을 둔다. 학술활동은 매년 2월과 8월 학회지 <보조사상>에 모아진다. <보조사상>은 교계 및 인연의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연구원의 권위와 명성을 갖고 있다. 회원은 년 4만원을 부담하는 일반회원과 년 6만원을 부담하는 단체회원으로 나뉜다. 회원은 <보조사상>과 <구산논집>이 발송받을 수 있다.

# 선찰대본산 범어사 동산문도 문장 착좌식

선찰대본산 범어사 동산문도 나옹당 능가 큰스님의 문장 착좌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 ◆ 일 시 : 불기 2552(2008)년 1월 31일(음 12. 24) 오후 1시
- ◆ 장 소 : 선찰대본산 범어사 대웅전 앞
- ◆ 주 관 : 동산문도회

대한불교조계종 제 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범어사

